

한돈자조금

porkboard.han-don.com

vol
1243

한돈산업을 지키는
한돈농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7





24

CONTENTS



22



18



28

04

한돈 SPECIAL

04

기획특집

기후 위기 속 한돈농가 생존 전략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속에 한돈농가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08

숫자로 보는 사업 이야기

한돈팜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할 수 있는 한돈팜스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0

한돈 NEWS

10

TV 속 한돈

여름날의 행복 같은 한돈 선물세트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한 한돈의 이야기를 짚어 봅니다.

12

주요 활동 소식

2022년 6월 · 2022년 7월
한돈자조금 주요 활동

한 달 동안 한돈자조금의 주요 활동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13

한돈 소식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략 워크숍 성료

한돈자조금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 다채로운 뉴스

18

위너스 한돈농가

일헌농장 이병헌 대표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시킨 일헌농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2

한돈 PLUS

22

한돈인증점

별달돈까스카페 김대영 대표

대전 최초의 돈까스 한돈인증점
별달돈까스카페의 맛있는 이야기

24

청년이 된다

도방육종 여준모 대표

안정적인 2세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도방육종 여준모 대표의 경영 이야기

26

돼지 질병 관리

포유자돈의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A 설사

건강한 돼지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질병 관리 이야기

28

한돈 HMR 레시피

한돈 앞다리살 활용 요리

부위별 한돈 요리법을 알아보는 시간,
한돈 앞다리살 활용 요리

30

양돈 동향

2022년 6월 양돈 동향 및 전망

2022년 6월 양돈 사육, 도축, 수입, 소비, 가격
동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34

이달의 키워드

아는 만큼 보여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를 알아보는 코너

35

독자마당

July 2022 Vol.1243

매월

15일 발행

발행일

2022년 7월 15일 발행 (통권 1243호)

발행처

대한한돈협회

0664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제작

디자인인화 02-324-6852

기후 위기 속 한돈농가 생존 전략

글 농장에서 식탁까지/팜인사이트 김재민 편집장 메일 maskman@safestory.co.kr



필자의 집은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여년간 돼지를 사육하였던 기억이 있다. 부모님을 따라 양돈장을 무척 많이 들락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2000년대 중반 돼지소모성 질병 때문에 양돈농가 생산성이 매우 낮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돼지를 덜 죽이며 키울 수 있는지를 부친께 여쭙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돌아온 답변은 돈 벌었다고 외부활동 많이 하고 축사를 덜 돌아보면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며, 돈사를 자주 방문해 돼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즉 생산성 향상시키고, 사고 줄이는 일은 양돈농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돈사를 자주 방문하니 돼지가 불편해 하는 일을 발견하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노력한 만큼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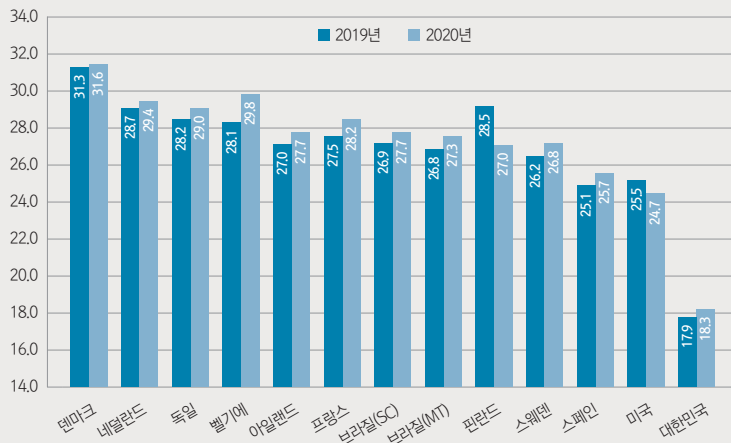
하지만 1980년대 우리 양돈장은 모든 20여두 규모의 지금으로 보면 소규모 양돈장에 불과했고, 외부 노동력 없이 가족끼리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규모였지만, 현재의 양돈장은 보통 모돈 200~300두 규모의 농장이 중간 규모, 소규모로 불리울 정도로 규모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주 양돈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후 위험

한국 양돈산업 낮은 생산성

국내 양돈농장의 낮은 생산성은 매우 고질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 때 MSY가 17두 내외를 오가다가 2020년 18.3두까지 늘어나며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 돼지고기 생산국과 비교하면 국내 양돈산업의 위치는 매우 좋지 못하다.

[국가별 연도별 MSY 비교]



국가별 연도별 MSY를 비교하면 덴마크는 31.6두로 세계 최고 수준을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8.3두로 덴마크와 비교해 13두나 차이남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 대부분이 28두 내외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양돈산업의 체질 개선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2020년 국가별 양돈 생산성적 비교]

구분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미국	대한민국
PSY(두)	33.9	30.8	30.6	30.1	28.9	28.1	27.3	21.3 ²⁾
MSY(두)	31.3	28.7	28.2	27.5	26.8	25.1	25.5	18.3 ²⁾
모돈회전율	2.25	2.34	2.30	2.37	2.43	2.30	2.40	2.13
이유-자돈구간 폐사율(%)	3.6	2.3	2.8	2.7	3.0	4.8	4.6	14.1 ³⁾
비육구간 폐사율(%)	3.4	2.3	2.6	3.7	2.5	4.1	5.3	
출하체중(kg)	119	125	123	122	110	117	129	116
도체중(kg)	89.6	97.4	95.0	93.0	82.0	88.2	94.2	88.2 ⁴⁾
WSY(kg)	2,828	2,860	2,754	2,621	2,237	2,264	2,323	1,614 ⁵⁾

- 1) Pigs reared/sow/year 2) 한돈팜스 전산성적 2020 3) 한국은 이유후폐사율
4) 탕박도체중 기준 5) 'MSY*도체중'으로 추정

출처: 영국 AHDB 2020/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통계연보' / 농림축산식품부 '2020 도축검사보고'



기후 변화

열악한 기후 조건 생산성에 직결

국내 양돈농장의 MSY가 낮은 이유는 돼지당 산자수가 기본적으로 유럽 등의 국가와 차이가 있고, 이유나 비육 구간 폐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MSY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양돈업계는 다산성 종돈의 도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쉽게도 폐사율에 있어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국내 양돈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혹독한 기상 조건 영향을 꼽는다. 국내 기후는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매우 춥고 건조하여, 사람들도 극한의 기상 조건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겨울에는 호흡기 질병이, 여름에는 미생물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관련한 질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척박한 기후조건에 맞게 양돈장의 환경을 돼지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시설 투자는 생각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국내 양돈산업에 큰 위기

기상청은 2020년 7월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3년 동안 한반도 배경 대기의 대표적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의 증가율이 뚜렷하다. 2001~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연강수량은 지난 30년 동안의 값에 비해 약 7.4% 증가하였으며 여름철이 가장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한반도 연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21세기 후반에 *RCP 4.5에서는 2℃ 이상, RCP 8.5에서는 4℃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반도 극한기온의 변화는 일최고기온에 비해 일최저기온의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고서에서는 호우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냉방도일, 성장도일은 증가하는 반면, 서리일수, 결빙일수, 난방도일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 국내 양돈산업 생산성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19년比 20년)	2021년
호당모돈수	257	270	272	100.7%	280
총산자수	10.88	11.09	11.12	100.3%	11.23
이유두수	9.85	10.04	10.11	100.7%	10.12
이유전육성율	90.5	90.5	90.9	100.4%	90.9
PSY	20.9	21.2	21.3	100.5%	21.6
MSY	17.9	17.9	18.3	102.2%	18.2
이유후육성율	85.9	84.5	85.6	101.3%	84.2
모돈회전율	2.13	2.14	2.13	99.5%	2.13
분만율	84.3	84.3	84.4	100.0%	84.7
출하일령	202	205	198	96.6%	201
사료섭취량	1.55	1.56	1.56	100.0%	1.55

자료 : 대한한돈협회, (2020년 한돈팜스 전산성적)

이러한 전망도 전망이지만 기후변화의 징후가 갈수록
이상 기후로 나타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으
며 이에 대한 대비 또한 매우 필요하다.

무창돈사 의무화, 스마트팜으로 전환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신규 양돈장에 대해 무창
돈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축산법 등의 개정을 완료
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악취 등을 통제하기 위한 교육지책
이지만, 무창돈사에는 필연적으로 환기와 온습도를 제
어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열악한 환경조건을 고려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스마트팜 설비를 포함하
는 무창돈사로 모아진다.

생산성 기준 상위 10% 이내에 포함되는 양돈장을 경
영하는 농가들을 인터뷰해보면 한결같은 답변도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돈산업은 이제
장치 산업화하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답변이다.
농장의 규모가 커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
진 상황에서 돼지에게 최적의 환경조건을 재래식 돈사
에서는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 농장의 규모가 작았던 시절에는 농장주가 자주 양
돈장을 들여다보고 돼지들의 상태와 환경 등을 고려해
조처했다. 농장 주의 부지런함과 경험이 생산성을 좌우
하게 된다. 지금은 농장주의 부지런함에 더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좀 더 돼지들의 상태를 입체적으로 파악
하고 모아진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제어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팜

양돈장의 정확한 전산 경영 관리

한돈팜스

농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이다. 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대한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의 기록 관리를 돕기 위해 한돈팜스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 중이다. 한돈팜스에는 매월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생산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농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돈산업의 생산 지표로도 활용 중이다.

4,245^호 농가 참여

02 한돈팜스에 참여하는 농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3,840농가로 시작했던 한돈팜스 참여농가는 2022년 6월말 기준, 4,245 농가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 개발 완료



01 한돈팜스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2012년 6월 '전국양돈전산관리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명칭 공모를 통해 현재의 한돈팜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간 운영 중입니다.

전국양돈전산관리시스템 — 명칭 변경 —> 한돈팜스



826,018^두
모돈 두수

03 한돈팜스에 등록·관리 되고 있는 모돈은 2022년 6월 말 기준 826,018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모돈 중 약 82.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99%
수급 전망 예측 정확도



05 최근 5년간 수급 전망 예측 정확도는 평균 99%입니다. 2017년 99.9%(예측치 1,670만두, 실제 1,671만두), 2018년 98.9%(예측치 1,716만두, 실제 1,735만두), 2019년 99.7%(예측치 1,776만두, 실제 1,781만두) 2020년 97.4%(예측치 1,785만두, 실제 1,831만두), 2021년 96.9%(예측치 1,782만두, 실제 1,836만두)를 기록했습니다.

18.3^두
사용농가 MSY 증가

04 (사)대한한돈협회는 한돈팜스 전산성적 보고회를 통해 한돈농가의 생산성적을 분석·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돈팜스 사용농가의 MSY는 처음 시작했던 2013년 17.6두에서 2020년 기준 18.3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1,830^{만두}
22년 출하두수 예측치



06 2022년 출하 예측 두수는 1,830만두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출하두수 1,829만 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상승과 관련, 언론에서는 공급량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한돈팜스 예측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행복 같은 한돈 선물세트



한돈과 함께 하는 즐거운 미션

6월 1일 방송에서는 AB6IX, 6월 15일 방송에서는 빅톤, TNX, 6월 29일 방송에서는 케플러가 출연하여 아돌라스쿨 홍보단장인 준케이와 이기광을 만났다. 홍보모델에 도전한 출연자들은 다양한 게임에 응하며 아돌라스쿨을 빛냈다. 당차고 씩씩한 아이돌들은 우승상품으로 등장한 한돈을 보며 전의를 불태웠다.

U+아이돌라이브 <아돌라스쿨: 홍보on아이돌>
6월 1일, 15일, 29일 방송



라이브 뮤직쇼에 등장한 한돈

매일 내 아이돌의 귓속 행복을 채워주는 보물 같은 플레이 리스트를 공개하고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선사하는 뮤직쇼 마이 플레이 리스트. 첫 방송과 두 번째 방송인 6월 21일과 25일, 게임 선물로 한돈이 등장했다. 출연자인 하이라이트와 여자아이들은 푸짐한 한돈을 선물 받았다.

KT seezn <마이 플레이 리스트>
6월 21일, 25일 방송

아이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예인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돈이 등장했다.
재미있는 출판, 아름다운 라이브 쇼, 흥미 있는 단합대회, 속 시원한 이야기
자리까지. 다양한 자리에서 우승상품으로 등장한 한돈 덕분에 덥고 짜증나는
여름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단합대회의 꽃 한돈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한돈이 등장했다. 아는 형님 6월 4일 방송은 형님 학교 단합대회로 꾸며졌다.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 깊은 이야기들부터 굶주린 자들의 마피아게임과 재롱잔치까지, 형님들만의 단합대회가 펼쳐진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게임의 우승자에게 한돈선물세트를 선물로 증정했다.

JTBC <아는 형님>
6월 4일 방송



한돈과 함께 하는 입담 대결

6월 18일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입방정 때문에 위기를 겪을 뻔했던 스타들의 사연을 대공개했다. 남편의 무뚝뚝한 말투와 아내의 무시하는 말투가 문제라는 배우 오영실부터 결혼한지 2개월이 된 가수 미자가 남편과의 부부싸움도 털어냈다. 이 날 입방정 토크에서 1위를 한 사람에게 한돈이 선물로 주어졌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
6월 18일 방송



2022년 6월·2022년 7월

한돈자조금 주요활동

6월 주요 활동 결과

- TV 광고
 - 22년 상반기 TVC 매체 집행(6월~)
- 디지털 광고
 - 한돈몰 6월 할인 기획전 온라인 광고 진행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옥외 및 스포츠 마케팅
 - 롯데마트 축산코너 행잉배너 게시(6/28~9/30)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 강철부대2-전우회 협찬(6/7 방송)
- 언론 홍보 및 대응
 - 농림부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6/23)
 - 삼겹살 가격 관련 위원장 기고(6/24. 아시아경제)
 - 세계환경의날(6/5) 계기 한돈 ESG 경영 기획기사 배포(중도일보)
 - 삼겹살 가격관련 농가 입장 설명 위원장 출연 (6/18. MBN 토요포커스)
- 한돈산업 인식개선
 - ESG 일러스트 공모전(6/13~7/31)
- 한돈 소비 홍보
 - 2022 미트엑스포 한돈 홍보 부스 운영(6/16~18)
 - 2022 한돈데이 입찰공고(6/15~29) 및 사업설명회(6/21)
 - 한돈 아이런 어린이 서포터즈 인증서 수여식(6/24)
- 사업관리
 - 2022년 상반기사업 평가 및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워크숍(6/30~7/1)
- 조사연구
 - 2021 한돈자조금 성과분석 중간보고회 개최(6/7)
- 수급안정
 - 뒷다리 수출 지원사업 업체 모집공고 (6/20)
- 소비 활성화-한돈몰
 - 한돈몰 기획전 운영
 - 전국 팔도 한돈 기획전 오픈 (6/2~6/30)
 - 애돈인 기획전 (5/26~6/24)
 - 반짝특가 (산수골목장, 이어도포크)
 - 캠핑 기획전 연장⇒ 상시물 운영
- 한돈 BI 사용 신청업체 심사/승인
 - 미소담은, 문경약돌돼지, 케이푸드

7월 주요 활동 계획

- TV 광고
 - 22년 상반기 TVC 매체 집행(7월~)
 - 상반기 광고 효과 결과 보고
- 디지털 광고
 - 한돈몰 7월 할인 기획전 온라인 광고 진행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옥외 및 스포츠 마케팅
 - 스크린골프 광고 입찰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 돌싱글즈3-제작 지원(7/10 방송)
- 언론 홍보 및 대응
 - 삼겹살 가격관련 농가 입장 설명 위원장 서면 인터뷰 (7/6. 한국농어촌방송)
 - 초복 관련 한돈 보양식 홍보자료 배포
 - 7월 기획기사(한돈건강 다이어트) 배포(코메디닷컴)
- 한돈산업 인식개선
 - ESG 일러스트 공모전(6/13~7/31)
- 한돈 소비 홍보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한돈 시식회(7/27~8/2)
 - 2022 한돈데이
 - 협력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7/11)
- 조사연구
 - 2021 한돈자조금 성과분석 최종보고회 개최(7/4)
- 소비 활성화-한돈몰
 - 한돈몰 기획전 운영
 - <쿠폰 왔썸머> 기획전 (7/1~31)
 - 반짝특가(이어도포크, 산수골목장)
 - <한돈몰 x 오투기> 랜선 쿠킹클래스 (7/20)
 - 이벤트 알림 페이지 제작, 한돈 SNS 홍보
 - 2022 추석 명절 캠페인 준비
- 한돈 BI 사용 신청업체 심사/승인
 - 보담, 서귀포축협 등
- 농가거출금 채권관리 후속조치
 - 아시아씨앤아이(임철우) 미수금(131백만원) 채권추심 재의뢰
- 상반기 외부회계감사(7/20~21)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략 워크숍 성료

한돈자조금,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 마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돼지문화원에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 '2022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사업 전략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돈산업의 현안을 되짚어 보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와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한돈자조금대의원회 배상건 의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김연성 교수가 참석했다.

김연성 교수의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2022년 상반기 사업 성과보고 및 평가 ▲2022년 하반기 사업 계획 ▲2023년 사업 계획 등의 의견을 나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하반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차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주요 현안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임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의지를 다지며, 앞으로 한돈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돈자조금, 육류산업박람회 ‘미트엑스포 2022’ 참가

참관객 대상 룰렛 이벤트
등 한돈자조금 홍보부스
북적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육류산업박람회 ‘미트엑스포(MEAT EXPO) 2022’에 참가해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전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박람회에서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사용하는 ‘한돈인증사업’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예비 창업자 및 종사자들에게는 한돈의 우수성, 한돈인증사업의 주요 혜택을 소개하는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부스 참관객 대상으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인증사업은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인증점에는 매출 활성화와 자부심을,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육류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예비 창업자들이 한돈인증사업에 관심을 갖고 첫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돈몰, ‘쿠폰이 왔쌔머’ 기획전 진행

최대 52% 할인,
전 상품에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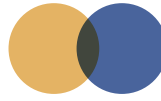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7월 한 달간 한돈몰(mall.han-don.com)에서 16종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쿠폰이 왔쌔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브랜드사별로 제공하는 할인 쿠폰과 한돈몰 회원 전용 쿠폰 4종을 중복 적용할 경우 최대 52%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특히 산수골목장, 돈마루, 태흥한돈, 하이포크, 안동참마돼지 등 5개 브랜드사는 한돈몰 전 상품에 대한 할인 쿠폰을 기간 내 무제한 제공하여 다양한 상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7월 중 한돈몰 구매고객 150명에게 11일, 18일, 25일, 총 3회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럭키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회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월 구매실적에 따라 매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한돈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회원 등급제도 시행한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단백질원으로서 맛과 영양이 풍부한 한돈 생산 및 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도 한돈자조금 성과분석 연구발표회 개최

농가·소비자 대상
한돈자조금 전반 효과
분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7월 4일 오후 2시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부터 6월 말(3개월)까지 진행한 ‘2021년도 한돈자조금 성과분석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도 한돈자조금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 대/내외적 성과분석, Buzz Big Data 분석 등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한돈자조금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2021년 자조금 1원당 한돈 농가 수입 증가액이 10.57원 증가(2020년 6.9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조금 세부 사업별 1원당 경제 효과는 소비홍보 6.01원, 수급안정 1.26원, 교육정보제공 2.79원, 유통구조 0.50원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 성과분석 조사결과에서 한돈농가의 한돈자조금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9.3%로 전년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62.7%가 한돈자조금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가 94%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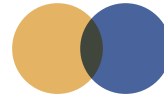
한편 소비자의 96.9%가 ‘한돈’을 인지하고 있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돈 정인지 비율은 34.4%로 전년(30.5%)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돈자조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잘 설계하여 한돈자조금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한돈산업 발전에 더욱더 꾸준히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앞으로는 한돈 이미지를 더욱 개선하고, 공익활동 강화 및 한돈 가치홍보 또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돼지고기 구입량(1개월 기준)]

전체 응답자(n=2,000)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례수		(2000)	(366)	(410)	(474)	(458)	(292)
구입횟수 (단위: 회)	국내산	4.9	5.3	4.9	5.2	4.5	4.5
	수입산	1.4	2.3	1.7	1.4	0.8	0.8
	GAP	3.5	3	3.2	3.8	3.6	3.6
구입량 (단위: g)	국내산	745.7	656.1	706.3	805.9	763.8	785.3
	수입산	654.5	572.8	592.4	744.5	688.7	714.3
	GAP	91.2	83.3	113.9	61.4	75.1	71
총 구입량 (횟수x양) (단위: kg)	국내산	3.7	3.5	3.5	4.2	3.4	3.5
	수입산	0.9	1.3	1	1.1	0.6	0.6
	GAP	2.7	2.2	2.5	3.2	2.8	2.9



‘한돈&아이런 서포터즈’ 3기 최종 4인 선발

한돈자조금 홍보 웹툰,
한돈 활용 요리대회 출연
등 어린이 모델로 1년간
활동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체험형 가족 예능 프로그램 TV아이런(I RUN)과 함께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아이런 서포터즈’ 3기 시상식을 진행했다.

‘한돈&아이런 서포터즈’ 3기는 지난 4월부터 모집 및 오디션을 거쳐 100인의 서포터즈를 선발, 한돈을 활용한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 미션을 수행했다. 이 중 최종 4인(박성훈, 박온유, 이도윤, 정지우)을 어린이 모델로 선정해 서포터즈 인증서와 한돈 세트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이들은 향후 1년 간 한돈자조금에서 진행하는 웹툰 형식의 광고·홍보 등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개그우먼 겸 가수 라윤경을 비롯해 개그맨 송영길, 정승환과 푸드테이너 최시온 셰프, 중식요리의 대가 구광신 셰프 등과 ‘한돈&아이런 가족 요리대회’를 함께한다. 이는 총 3편의 시리즈로 MG소비자TV, 육아TV, 플레이어런TV를 비롯한 15개 채널에서 송출된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TV아이런과 함께한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다시 일상을 되찾은 어린이들의 밝은 에너지를 볼 수 있었다”며 “최종 선발된 4명의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한 매력으로 우리돼지 한돈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에 위치한 일헌농장은 선도적인 양돈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의 우수농장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버지에게서 돼지 몇 마리를 물려받아 치열한 도전과 혁신으로 지금의 일헌농장을 일궈낸 이병헌 대표를 만나 경영노하우를 들어보았다.

‘관심’에서 출발해 ‘관심’으로 성장시킵니다

천안 일헌농장 **이병헌** 대표



시설 규모

총2개의 돈사
약 **1,700**두



생산 성적

MSY**24.2**두

PSY**25.1**두



평균 총산 **13.3**두

평균 실산 **11.9**두

모돈 회전율 **2.37**



*2021년 기준

가업으로 물려받은 양돈사업, 관심으로 키우다

일헌농장의 대표이자 대전충남양돈농협 이사를 맡고 있는 이병헌 대표가 양돈업계에 발을 담근 것은 1994년의 일이다. 처음에는 포도농사를 지으며 돼지를 키우던 아버지를 도와 두 가지 일을 병행했지만 이도 저도 아닌 결과물에 결국 50두 정도 되는 돼지를 물려받은 것이 그 출발이었다. 그때 나이 24살, 가업을 잇기는 했지만 양돈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9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11만원 안팎이었던 그때 이 대표는 수익이 나지 않아 고생 하다가 1998년 지원자금을 받아 지금의 돈사 2동을 짓고 선진 양돈사업을 위해 고군분투를 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도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이었다. 당시 홍성, 당진 등 구제역 피해를 안 겪은 데가 없었는데 일헌농장이 있던 천안 서북구 지역에는 구제역이 들어오지 못 했던 것이다. “그때 빚을 다 갚았어요.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나고 현금이 돌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는 어른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습시다. 어린 놈이 잘 해냈다고요. 농장주의 평균 연령대를 생각하면 당시 30대였으니까 어리긴 했죠.”

이 대표가 꺾길 소탈한 웃음을 짓는다. 이병헌 대표는 반편생을 몸담아 온 양돈사업의 근간을 ‘관심’으로 꼽았다. 주인의 직접적인 관심이 그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믿기 때문이다.

농장주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라는 돼지들

이병헌 대표의 돼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이러한 첨단시설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1년 365일 시설을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사료급여기와 음수대 역시 넉넉히 설치해 관리한다. 첨단 시설로 쾌적하게 만들고 사소할 수 있는 사료와 물을 직접 챙기는 것은 이 같은 조화의 일환이다.

“돼지들은 배가 고플 때 우르르 한곳에 몰려가서 먹이를 먹어요. 그러다 보면 밀려서 못 먹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먹은 애들이 빠진 뒤에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다른 돼지들이 다 먹고 가서 쉬면 자기도 그냥 따라가서 쉽니다. 그러다 보니 위축돈들은 계속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여기와 물을 넉넉히 놔줬더니 애들 사이에 싸움도 줄고 저체중도 좋아지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밤에는 개방돈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에어컨을 대신해 돼지들에게 지하수를 뿌려줬다.

지인들은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고 펄쩍 뛰었지만 직접 분사로 체온을 낮춰줄 정도로만 적절히 뿌려줬더니 돼지들의 활동성과 식욕이 올라갔다. 사료량을 꾸준히 체크하고 비교하면서 돼지들에게 최적의 컨디션을 찾아준다는 그는 첨단시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단언한다.

양돈사업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도 물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방역이나 전염병과 관련해 생기는 여러 안들이 지자체 혹은 각 부서마다 달라 충돌한다는 점을 난제로 꼽았다. 통일되지 않은 규칙이나 규제가 있을 때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곤란하고 이 때문에 만들어놓은 시설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힘든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분뇨처리는 공공처리화해야 한다고 봐요. 모돈 500두 이상은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 같은 소농들이 제대로 된 폐수처리를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는 공공처리장이 있어서 저는 원활히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농장주들을 보면 힘들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요.”

공원 같은 양돈농장을 꿈꿉니다

지금 이병헌 대표에게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물가와 유가가 폭등하면서 덩달아 뛰어오른 사료값 문제다.

“7월 한 달에만 사료값이 kg당 65원 올랐습니다. 100톤 기준으로 잡으면 650만 원이에요. 이게 누적되면 2인 인건비와 맞먹습니다. 사료 평균 단가가 kg당 700원대가 넘어가면 평균 자육단가가 5,500원 이상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경매 단가는 더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러다 말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병헌 대표는 뛰어 오르는 사료값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사료품관위원회 활동을 오래해온 덕분에 곡물가, 선물시장가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지만 결국 해결방안은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공공 처리시설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는 공공처리장이 있어서 저는 원활히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농장주들을 보면 힘들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는 유가를 변동시킬 수도 없고 물가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농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료 허실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갓 태어난 돼지가 보통 한 농장에서 사료의 2~3%를 쓰는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10%가 넘어갑니다. 갓난 돼지들이 먹는 사료에서 허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귀찮다고 한가득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소량으로 자주 주면서 허실을 줄여야 해요. 또 돼지들이 며칠 묵은 사료 맛을 기막히게 알기 때문에 대량 주문해서 두고두고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특히나 사흘만 지나도 벌크통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료 먹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귀찮고 미안해도 나눠서 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해요.”

평생을 몸 담아 왔지만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양돈사업이다. 30년간 돼지 곁을 지키면서 숏한 어려움을 겪고 성과를 거뒀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이병헌 대표는 양돈산업의 밝은 미래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이 하는 정도에 따라 명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스스로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꿈이요? 조경과 시설을 잘 갖춘, 멋진 공원 같은 농장을 꾸며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할 돈이 있으면 여행을 한 번 더 가겠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농장 주변이 깨끗하고 보기 좋으면 양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주민들도 찾아와서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병헌 대표는 대전충남양돈농협 브랜드인 ‘포크빌’에 대한 홍보를 잊지 않고 덧붙인다. 첨단 도축시설 덕분에 돼지고기의 품질이 뛰어나고 펍펙한 없는 부드러운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돼지에 대한 애정과 양돈업에 대한 긍지로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단단히 다져온 이병헌 대표. 그에게 양돈 사업은 과거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의 자신을 굳건히 발 딛고 서게 하며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에 틀림 없어 보였다.

TIP! 일헌농장 이병헌 대표가 전하는 사양관리

1

기록하라

양돈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해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청결하라

청결은 질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3

방역 지침에 충실하라

8대 방역시설 중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외부울타리 설치입니다. 외부울타리로 철저히 방어가 되면 질병 차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전 최초의 한돈인증 별달돈까스카페 김대영 대표

오직 한돈 본연의 맛으로 승부합니다

아이들과 젊은층이 즐겨 먹는 돈까스는 그 낮은 문턱만큼이나 경쟁이 치열한 요식업종 중 하나다. 오늘 방문한 곳은 대전지역에서 손꼽히는 맛집 별달돈까스카페다. 독보적인 맛과 분위기로 젊은 세대들은 물론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곳을 찾아 그 맛의 비결을 들어보았다.





📍 대전시 서구 둔산로30 2층

📋 별달돈까스+SIDE+ADE 1인세트 13,500원
별구름 2인 세트메뉴 26,900원
VIP 2인 세트메뉴 21,000원

🕒 10:30~21:00(마지막 주문 20:30)

별달돈까스카페의 비법



맛으로 역사를 만드는 곳

별달돈까스카페는 들어서서 순간부터 분위기로 사람을 압도한다. 빛이 잘 들어오는 큰 채광창, 널찍한 테이블 간격, 깔끔하고 감성 충만한 인테리어, 말 그대로 전연령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이 번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단일 메뉴인 ‘돈까스 맛’이다.

“돈까스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제일 먼저한 게 좋은 고기를 구하기 위해 육가공 업체를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때 HACCP 인증을 받은 육가공업체를 발견했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HACCP 인증을 받은 곳의 고기를 쓰다가 좀더 욕심을 내면서 한돈으로 넘어왔지요. 대전지역 돈까스집으로 저희집이 한돈 인증을 최초로 받은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돈으로 만드는 최고의 맛

별달돈까스카페의 돈까스는 예민하고 까다로운 손님들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잡내나 누린내가 전혀 없고 겉은 바삭하며 속은 촉촉한, 이른바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냉장상태로 받은 한돈을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적절한 온도로 충분히 숙성을 시키고 손님들의 입맛 테스트를 거친 가장 좋은 빵가루를 써서 튀겨내는 돈까스는 말 그대로 입에서 살살 녹는다. 두텁게 자른 돈까스 단면의 붉은색 또한 건강하고 신선한 돼지고기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라 미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손님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맛을 제공하는 것이다.

“돈까스를 만들 때 얇은 돈까스를 만드는 게 사실 훨씬 힘듭니다.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튀김옷만 있고 고기는 없다고 얇은 돈까스를 펴뻗하시는데 사실 억울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저희 카페의 얇은 돈까스를 먹고 많이들 놀라십니다. 고기가 얇은 데도 부드럽고 촉촉하다, 신선하다고요. 다음날 오셔서 포장해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김대영 대표의 철학은 오직 하나이다. “원재료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13,500원짜리 세트 하나에 한돈 특등심, 왕새우튀김, 우동, 수제소스, 히말라야 소금까지 곁들여내는 메뉴 덕분에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냐”는 걱정을 사지만 김대영 대표는 개의치 않는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최고의 품질로,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따리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변치 않는 맛과 마음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 받아온 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

양돈 2세대들이 농장경영을 주도하게 되면 여러가지 고민이 생긴다. 1세대들이 해 왔던 민원해결은 물론 노동력 절감, 타 농가와의 교류, 정보 숙지 등이 대표적이다. 양돈 2세대로 경영에 참여해 당면한 문제를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도방육종 여준모 대표를 만나 보았다.

도방육종 여준모 대표

Q. 도방육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다른 지역에서 농장을 하다가 1989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금까지 계속 운영 중입니다. 현재 일괄사육으로 6천두 규모이며 ICT 시설은 내부환경 관리시스템, 자동환기시스템, 모든 사료급이기, 액상급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양돈 2세대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다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Q. 경영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A. 제가 중학생 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와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쌀 외에는 대부분 식량자급률이 낮다. 그런데 돼지는 쌀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자급률을 가진 우리 국민의 대표 단백질 공급원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식량자원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한돈은 그 주축에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 때 나만의 농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결혼하자마자 농장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아버지와 경영문제로 의견차이는 없으신가요?

A. 제가 농장일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게 되셨어요. 형도 축산학과를 졸업하긴 했지만 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서 도방육종의 모든 경영은 제가 알아서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해오셨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는 현재도 제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계십니다.

Q. 실제 농장을 운영해 보시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A. 다른 것보다 민원이 가장 힘들었어요. 오래된 농장이다 보니 마을 안에 들어와 있고 주변에 귀촌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도 있거든요. 특히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생물도 넣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냄새를 조금 줄여줄 뿐,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Q. 해결 방법은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A. 혐기성바이오가스 플랜트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축산농장에도 많이 설치된 시설로 환경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어서 냄새를 아예 원천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농장에 보급형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BIOGEST라는 혐기성바이오가스 플랜트 선진기업의 기술을 이전 받은 (주)HC에너지라는 곳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데 플랜트 시설 건설까지 하게 되니 민원이 확 줄었습니다. 올해 10월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플랜트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니 먼저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적인 문제로 인해 사료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것이기에 좀 더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한돈자조금에서도 시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비선호부위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유자돈의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A 설사

포유자돈 설사 분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Colstridium perfringens* type A)이 분리 및 검출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세균성 질병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농장에 복합적인 문제(모돈 컨디션, 다른 질병과 복합감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볼 질병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농장에서 농장 성적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문진성 원장

서현동물병원
010-9538-1385
moonjs1385@daum.net

1

Colstridium perfringens type A의 발병 기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은 Gram-positive, spore forming bacteria로 특히 돼지의 장관 내에 존재하는 정상세균총의 하나이다. 소장보다 결장에서 많은 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정한 상황이 되면 신생 자돈 및 이 유자돈의 장관 내에서 장염을 유발하게 된다.

2

Colstridium perfringens type A의 진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설사의 진단은 매우 많은 factor들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 대장균 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콕시듐증 등과 감별진단되어야 하며, 특히 복합감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질병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표1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장염의 증상 및 진단]

임상증상 및 진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감염
설사의 발생 일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1주령 이내에 설사 발생 예외적으로 3주령에서도 발생하는 예가 있음
설사의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란색 연변 혹은 비출혈성 점액변 심할 경우 수양성 설사 발생
탈수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개 탈수 증상이 심하지 않음 바이러스 질병과 복합 감염 시 심한 경우 발생
동복 내 이환율 및 폐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환율은 높으나 폐사는 빈번하지 않음 바이러스 질병과 복합 감염 시 심한 경우 발생
설사에서 혈액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변은 거의 관찰되지 않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균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실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균 분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
분리균의 유전자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파 및 베타2독소 유전자 검출
다른 질병의 병원체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균, 로타, 피이디, 콕시듐 등의 질병과 감별진단 대장균, 콕시듐, 로타바이러스와의 복합감염도 고려해야함

3

Colstridium perfringens type A 및 복합감염의 예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농장에서 나타나는 설사 증상을 멈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백신 프로그램의 점검, 예방적, 치료적 항생제의 투약 프로그램 점검 및 돈사 환경의 관리 등을 담당 수의사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표2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및 기타 질병의 검출]

Bacteria or Virus	No.	%
CPA	30	60%
CPA + E.Coli	6	12%
CPA + PED	5	10%
CPA + Rota	7	14%
CPA + Rota + E.coli	2	4%
합	50	100%

4

Colstridium perfringens type A의 치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설사를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모든 분만 전 2-3주간 BMD, 암피실린 혹은 CTC(Chlor-tetracycline)를 사료에 첨가하여 수직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한다.

포유자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에 의한 설사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임상증상이 수일간 지속된 경우 약효가 매우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처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CPA에 의한 포유자돈의 설사는 한번 발생 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Penicillin, Ampicillin 또는 Amoxicillin제를 분만 직후 포유자돈에 1-3일 동안 예방적으로 투약할 수 있다.

5

Colstridium perfringens type A에 의한 질병의 예방

적절한 타이밍에 일정량 이상이 되는 양질의 초유를 섭취하는 것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장염 이외의 많은 포유자돈 질병에서 중요한 포인트이다. 모든 체형관리 및 건강하게 관리하여 유방염, 유질저하, 유량 감소 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포유가 되는지 항상 관찰한다. 또한 모든 돈체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은 spore를 형성하는 균으로, 소독약에 대해 일부 저항성을 가지므로 알데하이드 계통의 소독제 등을 사용해야 하며, 만성 농장에서는 All-in-all-out 및 분만사 이동 전 후 분만을 세척 및 소독 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상용화 백신이 시판되고 있지 않으며, 인공감염, 분변 되먹이기 또는 자가백신 사용을 통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에 대한 방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ED, TGE, Rota virus, 대장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C형 등이 포함된 백신을 꾸준히 접종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A형 이외의 다른 소화기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야 하며, 정기적인 구충을 통해 포유자돈에서의 복시뿔증을 예방해야 한다.

<참고문헌>

표1: collins JE, et al. Diagnosis of Clostridium Perfringens type A enteritis in piglets. Swine health and production 1994; Volume 2,number5,24.

표2: 2016~2017년 육십자수의약품 병성감정 결과 참고



앞다리살 활용 요리 ① 한돈 복분자 장육

앞다리살은 돼지의 어깨와 앞다리 부위의 살을 말하며 어깻살로 부르기도 한다. 걸터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로 기름기가 적고 육질이 쫄깃하다. 돼지 족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로 장조림, 제육볶음, 수육, 찌개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재료

한돈 앞다리살 300g, 부추 100g,
팽이버섯 1봉지, 대파 1대, 생강 5g,
건고추 1개
복분자 조림장 간장, 물엿, 복분자주
2큰술씩, 설탕 1큰술, 육수 2컵
겨자소스 연겨자 ½큰술, 식초, 설탕,
배즙 2큰술, 간장 1큰술, 소금 ⅓큰술

조리법

1. 한돈은 300g을 한 덩어리로 준비하여 팬에 굴러가며 사방을 노릇하게 굽는다.
2. 냄비에 대파, 생강편, 건 고추를 물 6컵과 담아 끓기 시작하면 ①의 한돈을 넣고 푹 무르도록 삶아 건지고 육수를 걸러 조림장에 사용한다.
3. 냄비에 조림장 재료와 ①의 한돈을 넣고 윤기 나게 조려 한 김 식혀 1cm 두께로 썬다.
4. 부추는 5cm 길이로 썰어 놓는다.
5. 접시에 부추, 팽이버섯을 깔고 한돈 복분자 장육을 가지런히 펴 담는다.



② 한돈 씨겨자 스테이크

35페이지 돼박 선물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돈 HMR 레시피 코너에 소개된 ‘한돈 복분자 장육’ 밀키트를 보내 드립니다.
응모방법은 35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재료

한돈 앞다리살 180g, 밀가루 2큰술,
소금, 후추 약간, 올리브유 2큰술
스테이크 양념 씨겨자 2큰술,
꿀 1큰술, 돈가스 소스 2큰술 혼합
첨가양념 화이트와인 1큰술,
파마산 치즈가루 3큰술

조리법

1. 한돈 앞다리살은 1cm 두께에 180g을 준비하여 고기망치로 두들긴 후 소금, 후추로 밑간하여 10분간 숙성 시킨 다음 밀가루를 묻힌다.
2.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①의 한돈 양면을 노릇하게 지진다.
3. ②의 구운 한돈 양면을 스테이크양념으로 펴 바른다.
4. ②의 사용했던 팬에 그대로 ③의 한돈을 구우며 화이트 와인을 넣고 한돈 윗면에 파마산 치즈를 올려 뚜껑을 덮는다.
5. 화이트 와인이 조려지고 치즈가 녹으면 꺼낸다.

사육

6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평년 대비 2.2% 증가 전망

2022년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평년 대비 0.9%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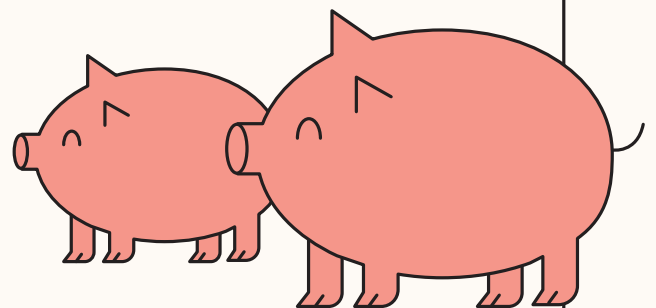
- 6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1,174만 7천 마리) 대비 2.0%, 평년(1,173만 2천마리) 대비 2.2% 증가한 1,198만 5천마리 전망
- 6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97만 8천마리) 대비 0.2%, 평년(98만 2천마리) 대비 0.5% 감소한 97만 6천마리 전망
- 2022년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1,184만 6천마리) 대비 2.0% 감소, 평년(1,171만 3천마리) 대비 0.9% 감소한 1,160만 9천 마리 전망
- 2022년 12월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97만 9천마리) 대비 0.5%, 평년(98만마리) 대비 0.5% 감소한 97만 5천마리 전망

도축

6월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평년 대비 0.5~3.5% 증가 전망

2022년 돼지 전체 등급판정 마릿수는
평년 대비 2.5~3.7% 증가 전망

- 3월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144만 8천마리) 대비 4.5~7.5% 감소, 평년(133만 3천마리) 대비 0.5~3.5% 증가한 134만~138만마리 전망
- 2022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전년(1,836만 6천마리) 대비 -0.9~0.2% 증감, 평년(1,775만마리) 대비 2.5~3.7% 증가한 1,820만~1,840만마리 전망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철저!

» 감염의심축(고열, 급사 등) 발견 시 지자체 방역 부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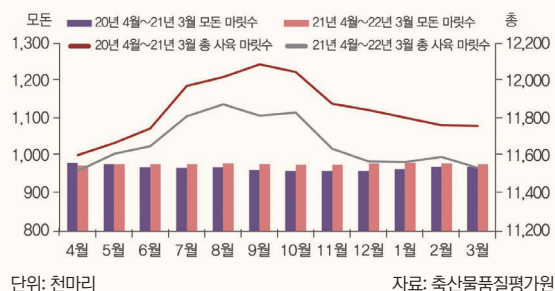
2021년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천마리, %

구분	평년	2021	2022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총 마릿수	11,576	11,539	11,759	1.6	1.9
모돈 수	984	971	978	-0.5	0.8
자돈	3,822	3,853	3,939	3.1	2.2
육성돈	3,254	3,267	3,356	3.1	2.7
비육돈	3,422	3,307	3,357	-1.9	1.5

주: 돼지 사육 마릿수는 해당 월말 기준 이력제 신고자료임.

2021년 4월~ 2022년 3월 돼지 사육 마릿수 동향



사육 전망

6월 돼지 사육 마릿수 평년 대비 증가

- 6월 돼지 사육 마릿수: 1,198만 5천마리
 - 전년(1,174만 7천마리) 대비 2.0%, 평년(1,173만 2천마리) 대비 2.2% 증가
 - 모돈 사육 마릿수: 97만 6천마리
 - 전년(97만 8천마리) 대비 0.2%, 평년(98만 2천마리) 대비 0.5% 감소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 평년 대비 감소

- 12월 돼지 사육 마릿수: 1,160만 9천마리
 - 전년(1,184만 6천마리) 대비 2.0% 감소, 평년(1,171만 4천마리) 대비 0.9% 감소
- 12월 모돈 사육 마릿수: 97만 5천마리
 - 전년(97만 9천마리)과 평년(98만마리) 대비 0.5% 감소

도축 전망

6월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평년 대비 증가

- 6월 등급판정 마릿수: 134만 ~ 138만마리
 - 이유후 육성률과 MSY 향상, 출하일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으로 평년(133만 3천마리)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작업일수 감소로 전년 대비는 감소 전망

2022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평년 대비 증가

- 2022년 등급판정 마릿수: 1,820만~1,840만마리
 - 평년 대비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 모돈 사육의향 증가로 2022년 연평균 총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평년(1,775만마리) 대비 2.5~3.7% 증가, 전년(1,836만 6천마리)과 비슷한 수준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 전망

단위: 천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2년	1,576	1,482	1,700	1,539	1,528	1,340~1,380	1,380~1,420	1,440~1,480	1,410~1,450	1,510~1,550	1,670~1,710	1,630~1,670	18,200~18,400
2021년	1,599	1,415	1,688	1,550	1,439	1,448	1,347	1,415	1,488	1,539	1,717	1,719	18,366
2020년	1,591	1,566	1,582	1,604	1,409	1,397	1,481	1,341	1,496	1,541	1,614	1,685	18,307
평년	1,596	1,386	1,519	1,501	1,430	1,333	1,371	1,356	1,415	1,589	1,642	1,612	17,750

주: 평년은 2017~2021년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축산물품질평가원(2022년 5월부터는 농업관측센터 추정 또는 전망치)

수입 전망

6월 수입량 전년 대비 증가, 평년 수준 전망

- 6월 돼지고기 수입량: 3만 2,000 ~ 3만 4,000톤
 - 전년(3만 2,503톤) 대비 3.1% 증가, 평년(3만 3,695톤) 수준
 -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평년 수준 전망

■ 1~4월 부위별 수입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HS CODE	평년	2021년	2022년(전년비)
냉장	삼겹살	0203191000	5.4	5.8	7.0(21.0% ↑)
	기타	0203199000	4.9	5.0	5.6(11.8% ↑)
냉동	삼겹살	0203291000	4.6	5.4	5.6(3.9% ↑)
	기타	0203299000	2.6	2.9	3.0(1.8% ↑)

자료: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net)

2022년 수입량 전년 대비 증가, 평년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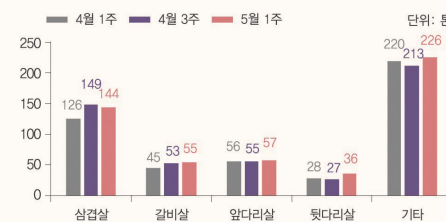
- 2022년 돼지고기 수입량: 36만 ~ 38만톤
 - 전년(33만 3천톤) 대비 8.2~14.2% 증가, 평년(37만 4천톤) 수준
 - 국내 수요 증가, 상반기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 전망

소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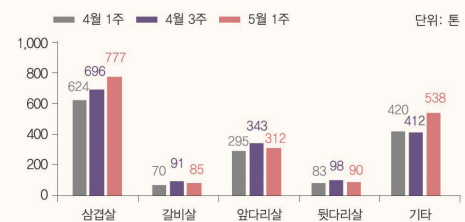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외식소비 증가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에서 주요 프랜차이즈 식당에 대한 돼지 유통이력 물량을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 해제(4월 18일) 이후 4월 3주차 삼겹살, 갈비 유통량이 4월 1주 대비 17.8%, 15.7% 증가하였으며, 5월 1주차는 4월 1주 대비 13.7%, 20.7% 증가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사)의 4월 3주차 삼겹살, 갈비 유통량은 4월 1주 대비 11.5%, 30.0% 증가하였으며, 5월 1주차는 4월 1주 대비 24.5%, 20.6% 증가

돼지 유통이력 물량 분석 결과(식당)



돼지 유통이력 물량 분석 결과(대형마트)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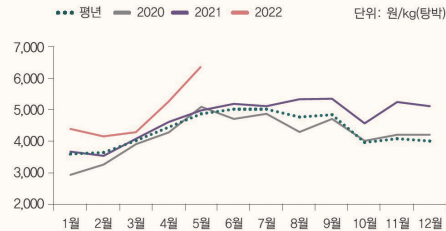
4월 돼지 도매가격 평년 대비 상승

- 4월 도매가격: 5,251원/kg
 -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따른 외식소비 증가로 전년(4,627원) 대비 13.5%, 평년(4,479원) 대비 17.2% 상승
- 5월 도매가격: 6,385원/kg
 -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수입단가 상승, 환율 상승 등 국제적 공급 요인에 따라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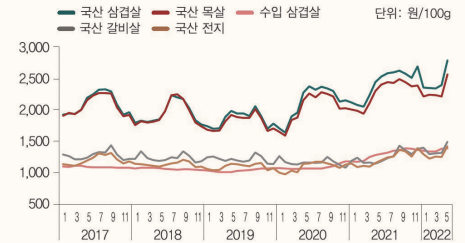
■ 5월 삼겹살 소매가격: 2,802원/100g

- 전년(2,451원) 대비 14.3%, 평년(2,148원) 대비 30.5% 상승

돼지 월평균 도매가격 추이(제주 제외)



돼지 부위별 소매가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전망

6월 돼지 도매가격 평년 대비 상승

■ 돼지 도매가격: 6,000~6,2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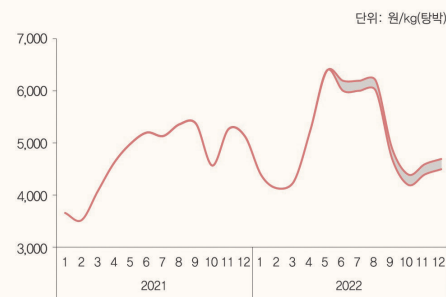
- 6월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5,204원) 대비 15.3~19.1%, 평년(5,043원) 대비 19.0~22.9% 상승 전망

※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가격 추가 상승 요인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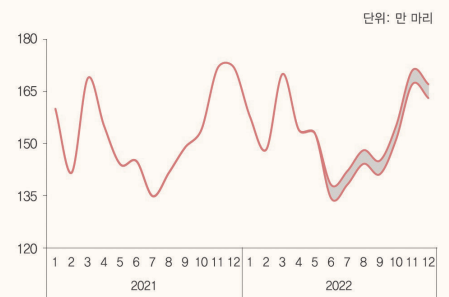
2022년 평균 돼지 도매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2022년 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및 수입량 증가로 국내 공급량은 평년과 전년 대비 증가하나 국제적 공급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식수요 증가로 전년(4,722원/kg)과 평년(4,374원/kg) 대비 상승한 4,900~5,100원/kg 전망

도매가격 전망



등급판정 마릿수 전망



이달의 트렌드 키워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삶과 소비 트렌드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MZ세대가 무엇에
열광하는지, 시시각각 변모하는
트렌드를 파악해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본다.



#MZ세대의 소비 문화

#플렉스(Flex)

최근 ‘플렉스하다’, ‘플렉스해 버렸지 뭐야’ 같은 말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플렉스(Flex)라는 말은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이지만 1990년대 힙합문화에서 ‘부나 명품을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MZ세대 래퍼들이 노랫말에 자주 사용하면서 유행에 이르렀다. MZ세대들이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플렉스 문화라고 한다. 플렉스는 단순히 명품구매에 그치지 않는다. 그림이나 예술 작품에 투자하는 아트 플렉스, 고가의 음식을 사는 푸드 플렉스도 유행이다.



#합리적인 소비방식

#가치소비

트렌드나 유행을 선도하는 MZ세대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치소비라고 한다. 이는 남을 의식하는 과시소비가 아닌 본인에게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에 과감하게 소비하는 것이다.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가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한다. 대표적인 가치소비로는 정치적, 사회적 신념에 따라 소비를 정하는 미닝아웃,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그린슈머 등이 있다.



돼지·박 선—물

이벤트 [인증샷]

한돈자조금 소식지 <한돈자조금>
인증샷 찍고! 한돈 받고!

▶ 응모방법

휴대폰

- 1 카카오톡 친구 또는 채팅 탭의 '상단 검색'에서 '**한돈**'을 검색합니다.
- 2 플러스친구 검색 결과에서 '**한돈**' 플러스친구와 친구를 맺습니다.
(pf.kakao.com/_RrVul)
- 3 인증샷과 이름/연락처/주소를 써넣어 전송하면 이벤트 응모 끝!
매일 designshinhwa@naver.com으로 응모

* 응모 시에 주소(우편번호 포함)와 휴대폰 번호를 꼭 함께 남겨주세요.

이벤트 [Quiz]

트렌드나 유행을 선도하는 MZ세대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토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구매가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하는 소비를 일컫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 ① 상생소비 ② 의미소비 ③ 그린소비 ④ 가치소비



[인증샷]과 [Quiz]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한돈 밀키트 세트(P28 참고)를 보내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리뷰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기간

2022년 8월 1일까지

발표

2022년 8월호 한돈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연락

문의

02-324-6852

▶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한돈 밀키트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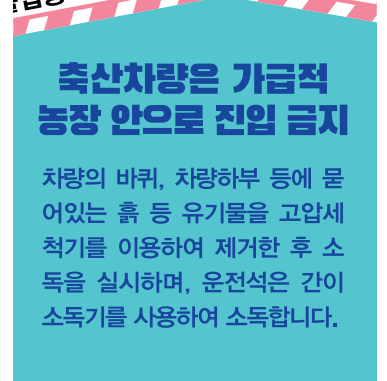
인증샷

이*하(5238), 임*숙(6359)

퀴즈

김*웅(6843)

*5만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돈자조금 소식지 제작 대행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ASF 바이러스는 매개체/차량, 물품/사람으로 인해 농장내로 유입됩니다. ASF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농장을 지켜냅니다.

감염의심축(고열, 급사 등) 발견 시
지자체 방역 부서 신고
1588-4060